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90-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24 가족인식조사:
- 기혼 가정의 가사분담 및 대소사 결정권

2024. 7. 24.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과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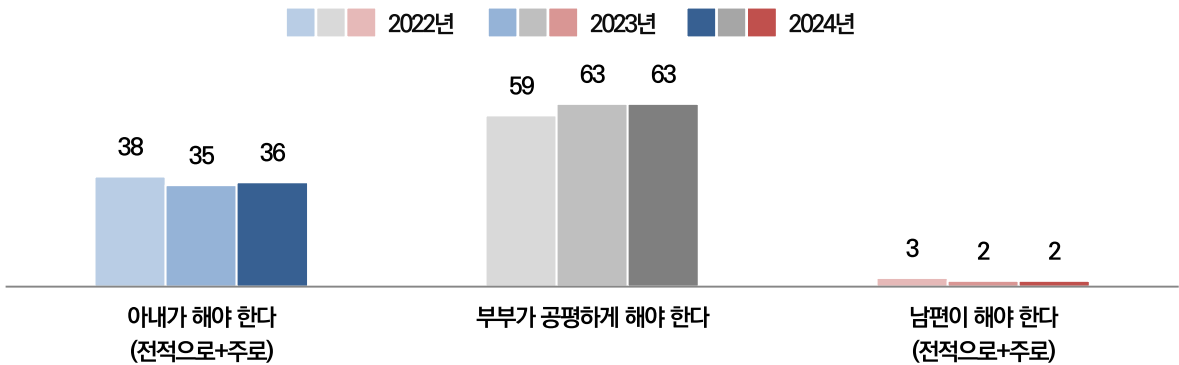
10명 중 6명은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 노동 분담해야' 인식 기혼 남녀도 56%가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 노동 분담해야' 한다는 데 동의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63%)은 가사 노동을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36%는 아내가 전적으로, 혹은 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기혼 남녀로 한정해도, 부부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보는 사람은 56%, 아내가 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은 43%이다. 여성이 집안일을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 적지는 않으나, 부부가 같이 가사노동을 분담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명 중 6명은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 노동 분담해야' 인식 기혼 남녀도 56%가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 노동 분담해야' 한다는 데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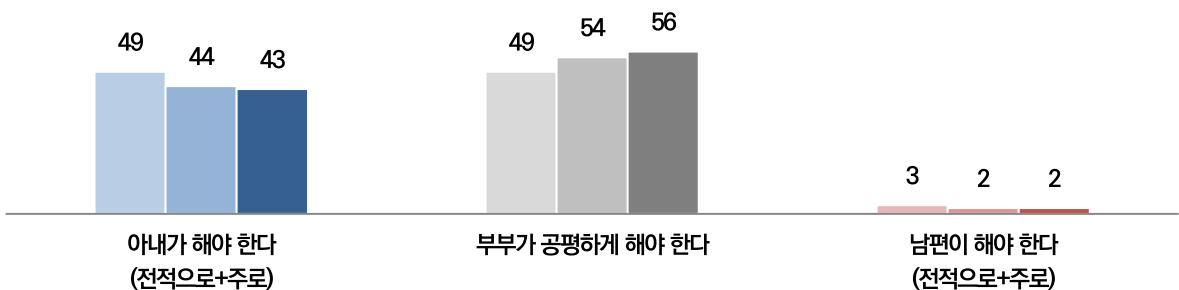
기혼 가정의 가사 분담 - 전체

(단위 : %)



기혼 가정의 가사 분담 - 기혼 남녀

(단위 : %)



질문 : 기혼 가정의 가사 분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 전체 - 각 조사별 1,000명(기혼남녀 2022년 582명, 2023년 588명, 2024년 585명)

조사기간 : 2022. 6. 17 ~ 20 // 2023. 6. 23 ~ 26 // 2024. 4. 18 ~ 22

젊은 세대와 미혼자는 가사노동 평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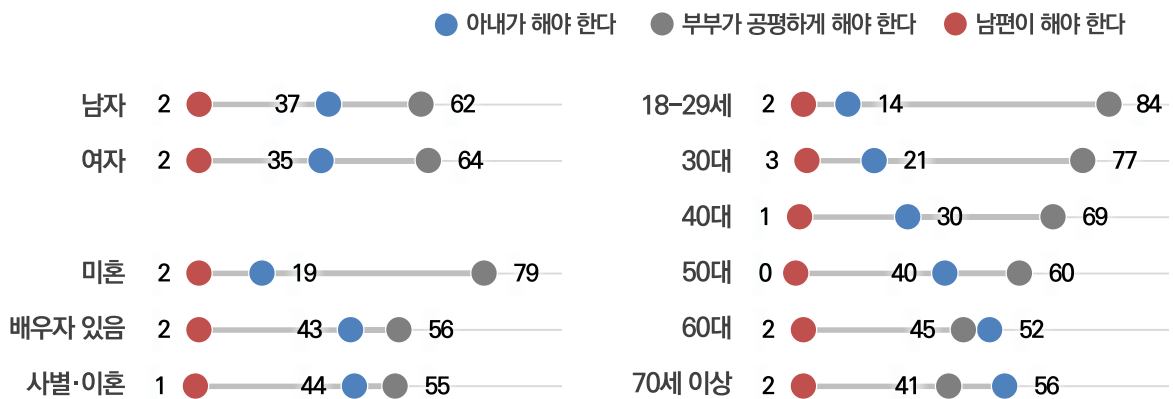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은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사노동은 아내가 해야 한다는 인식이 뚜렷하다. 18~29세에서는 14%, 30대에서는 21%가 아내가 가사노동을 담당해야 한다고 인식하나, 60대에서는 52%, 70세 이상에서는 56%로 높아진다. 반대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부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한다. 70세 이상은 41%, 60대는 45%가 부부의 공평한 가사 분담에 동의하는 반면, 30대에서는 77%, 18~29세에서는 84%가 이에 동의한다.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도 뚜렷하다. 앞서 언급했듯, 기혼 남녀 중 가사 노동을 아내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3%, 부부가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6%이다. 반면 미혼 남녀 중에서는 19%만이 아내가 가사 노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79%는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젊은 세대와 미혼자를 중심으로, 가사 노동을 남녀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기혼 응답자 중 43%는 '아내가 주로 가사노동 해야...' 미혼 응답자는 19%만이 그렇게 생각
연령대 높아질수록 '아내가 주로 가사노동 해야', 연령대 낮아질수록 '부부가 공평하게 해야' 인식 증가

(단위 : %)



질문 : 기혼 가정의 가사 분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4. 4. 18 ~ 2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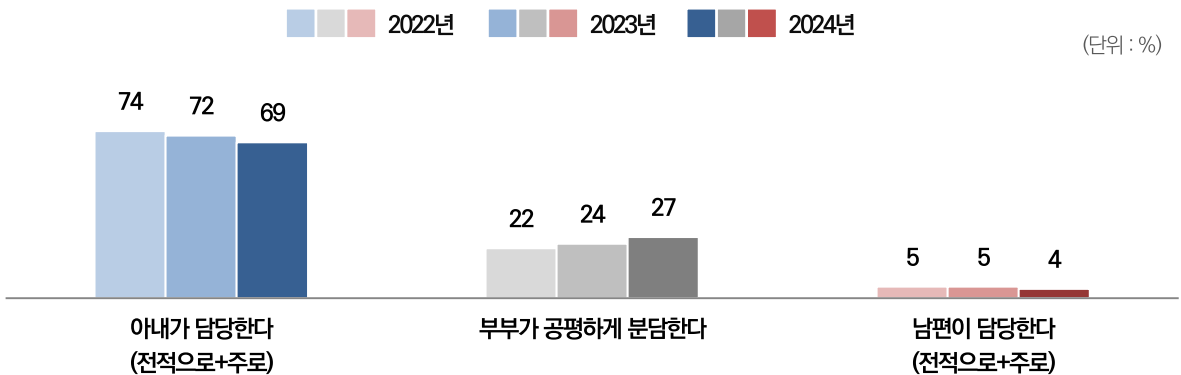
기혼 가정의 실제 가사분담,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거나 주로 담당한다' 69% 현재 맞벌이 가구인 응답자도 61%가 '아내가 가사노동 담당하고 있어'

하지만 현실에서의 가사분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치우쳐 있다. 기혼 남녀 585명에게 실제 가사 노동을 어떻게 분담하는지 확인한 결과, 아내가 담당하고 있다는 사람이 69%로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사람(27%)보다 두 배 이상 많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아내가 담당한다는 응답은 5%포인트 감소하고 부부가 공평하게 나눈다는 응답은 5%포인트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큰 격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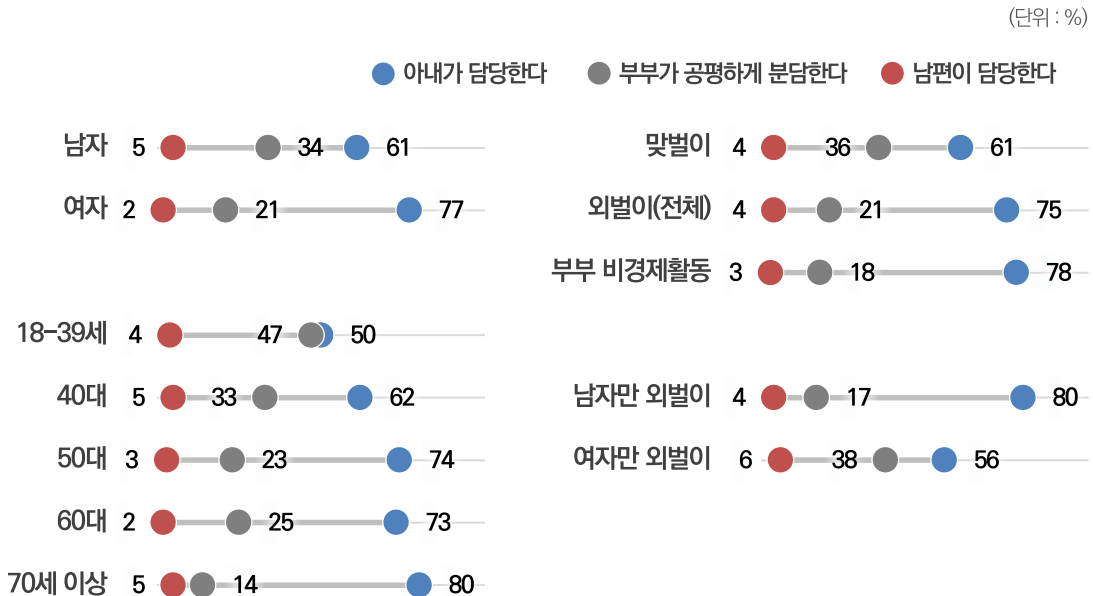
18~39세 기혼 남녀에서만 아내가 담당한다는 사람(50%)과 부부가 분담한다는 사람(47%)이 큰 차이 없이 비슷하고, 40대부터는 아내가 가사를 담당한다는 응답이 크게 높아진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응답자 중에서도 61%가 아내가 가사를 담당한다고 답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사람(36%)보다 많다. 남자가 외벌이를 하는 가정의 응답자 중에서는 80% 아내가 가사를 담당한다고 답했고, 여자만 외벌이를 하는 가정의 응답자 중에서도 56%가 아내가 가사노동을 담당한다고 답했다.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이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음이 확인된다.

흥미로운 점은, 성별의 따른 차이도 확인된다는 점이다. 남성 중에서는 61%가 가사노동을 아내가 담당한다고 답한 반면, 여성은 이보다 많은 77%가 그렇다고 답했다. 가사노동 참여도와 평가에서, 부부 간 시각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기혼 가정의 실제 가사분담,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거나 주로 담당한다' 69%, 여전히 높아



연령대 높을수록 '실제로는 아내가 가사노동 담당' 높아 현재 맞벌이 가구인 응답자도 61%가 '아내가 가사노동 담당하고 있어'



질문 : 실제 귀댁에서는 가사를 어떻게 분담하고 있습니까?

응답자 수 : 2022년 582명, 2023년 588명, 2024년 58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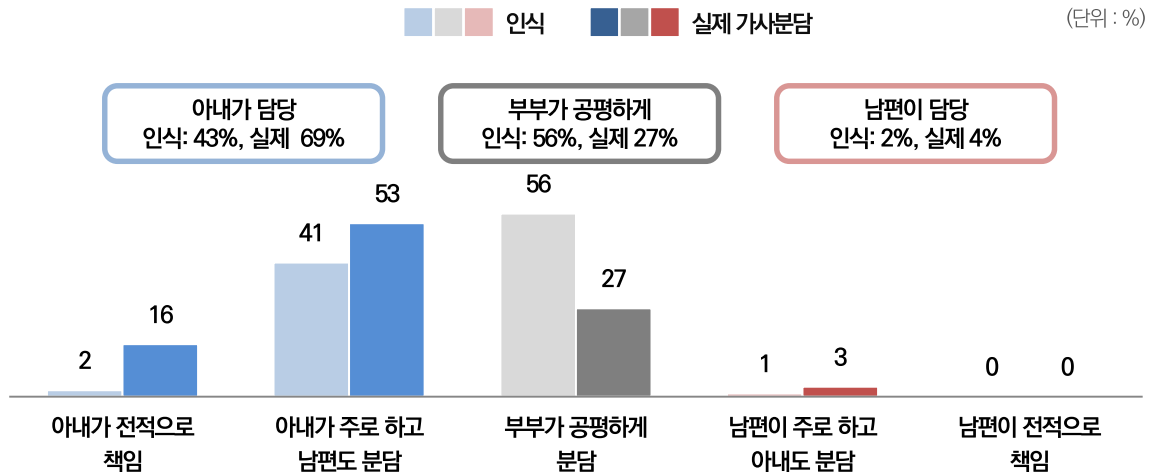
조사기간 : 2022. 6. 17 ~ 20 // 2023. 6. 23 ~ 26 // 2024. 4. 18 ~ 22

기혼 남녀의 가사 분담 인식과 현실 간 격차, 여전히 커

가사 분담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간극은 여전히 크고, 변화는 더딘 것처럼 보인다. 기혼 남녀의 56%가 부부의 공평한 가사 분담에 동의하나, 실제로 공평하게 분담을 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절반인 27%에 그친다. 반면 아내가 가사노동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43%)에 비해, 실제로 아내가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람이 더 많다(69%).

18~39세 기혼 남녀 4명 중 3명(74%)이 가사노동을 부부가 공평하게 나눠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반(47%)에 그친다. 맞벌이 가정인 사람도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65%)과 실제(아내가 담당한다 61%) 간 간극이 확인된다. 전 세대에 걸쳐, 그리고 현재 누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게 맞다는 인식과 실제 가사노동을 부부가 공평하게 한다는 응답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인다.

기혼 남녀의 가사 노동 분담, 부부가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다수(56%)이나, 실제로는 아내가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이 다수(69%)



질문: 인식 - 기혼 가정의 가사 분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실제 - 실제 귀댁에서는 가사를 어떻게 분담하고 있습니까?

응답자 수: 현재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585명

조사기간: 2024. 4. 18 ~ 2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기혼 남녀의 가사 분담 인식과 현실의 격차, 전 세대에 걸쳐서 확인돼

(단위 : %)

사례수 (명)	아내가 (전적으로 + 주로)			부부가 공평하게			남편이 (전적으로 + 주로)		
	인식	실제	차이 (실제-인식)	인식	실제	차이 (실제-인식)	인식	실제	차이 (실제-인식)
전체 (585)	43	69	+26%p	56	27	-29%p	2	4	+2%p
성별									
남자 (288)	42	61	+19%p	56	34	-22%p	2	5	+3%p
여자 (297)	43	77	+34%p	56	21	-35%p	1	2	+1%p
연령									
18-39세 (75)	26	50	+24%p	74	47	-27%p	0	4	+4%p
40대 (126)	32	62	+30%p	67	33	-34%p	1	5	+4%p
50대 (141)	43	74	+31%p	57	23	-34%p	1	3	+2%p
60대 (142)	53	73	+20%p	45	25	-20%p	2	2	0%p
70세 이상 (100)	55	80	+25%p	41	14	-27%p	3	5	+2%p
맞벌이 여부									
맞벌이 (270)	34	61	+27%p	65	36	-29%p	1	4	+3%p
외벌이(전체) (231)	48	75	+27%p	50	21	-29%p	2	4	+2%p
남자만 외벌이 (188)	50	80	+30%p	48	17	-31%p	3	4	+1%p
여자만 외벌이 (43)	40	56	+16%p	60	38	-22%p	0	6	+6%p
부부 비경제활동 (84)	56	78	+22%p	42	18	-24%p	2	3	+1%p

질문 : 인식 - 기혼 가정의 가사 분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실제 - 실제 귀댁에서는 가사를 어떻게 분담하고 있습니까?

응답자 수 : 현재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585명

조사기간 : 2024. 4. 18 ~ 2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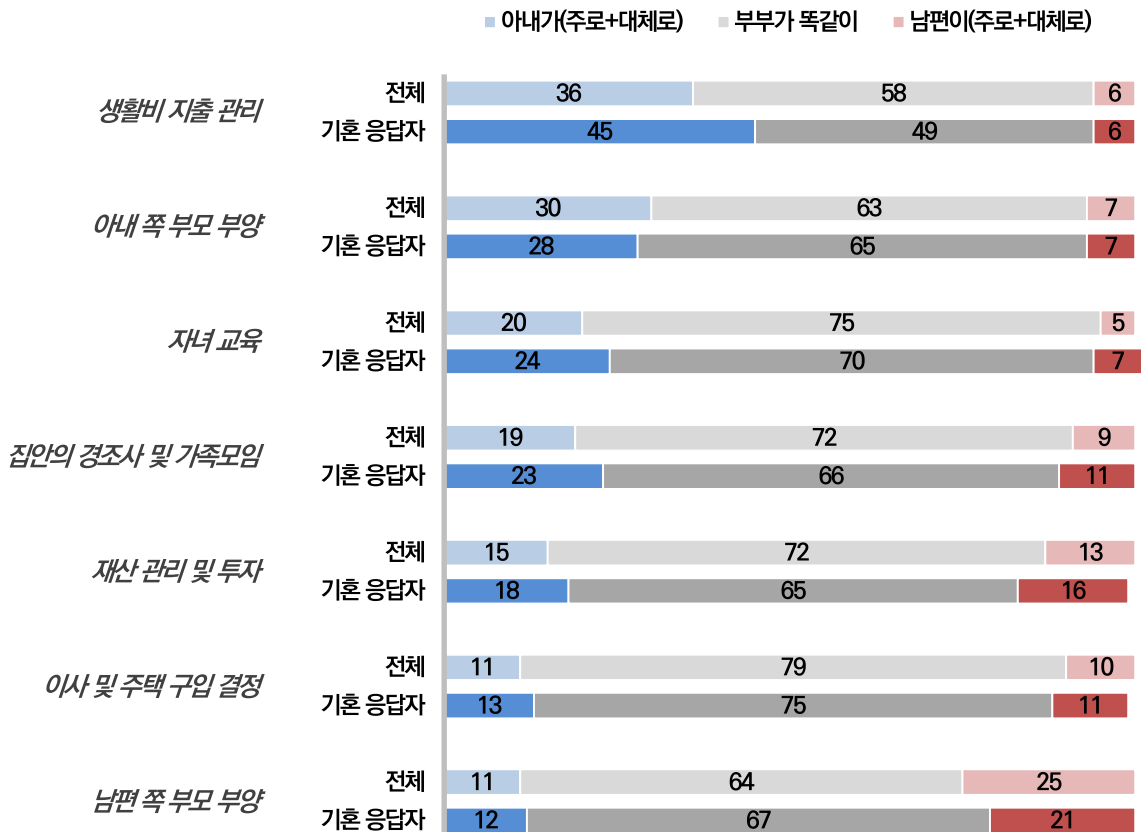
집안 주요 대소사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과 현실

집안 주요 대소사에 대한 의사결정권, 부부가 똑같이 가져야 한다는 인식 우세

집안의 주요 대소사의 의사결정권을 누가 가져야 한다고 보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누구에게 의사결정권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았다. 생활비 지출 관리, 재산 관리 및 투자, 이사와 주택구입 결정, 자녀 교육, 집안 경조사와 가족모임, 부모 부양 등 주요 대소사에 대해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다수이다. 기혼 남녀로만 한정해도, 생활비 지출 관리에 대해서만 아내가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45%로 높을 뿐, 나머지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 이상이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22년 이후부터 주요 집안 대소사에서 부부가 동일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7개 전체 항목에서 다수를 유지하고 있다.

집안 주요 대소사에 대한 의사결정권, 부부가 똑같이 가져야 한다는 인식 우세

(단위 : %)



질문 : 다음의 각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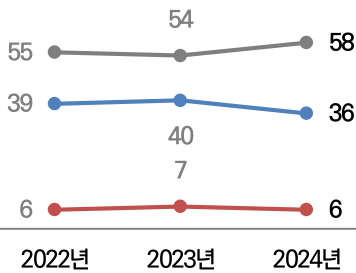
응답자 수 : 전체 1,000명, 기혼 응답자 585명

조사기간 : 2024. 4. 18 ~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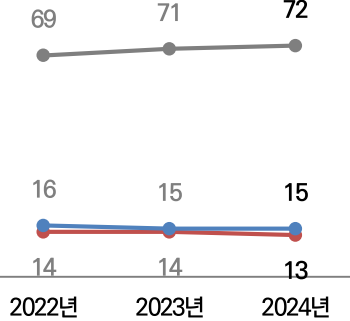
주요 집안 대소사에 대한 의사결정권 소유 인식 비교(2022년 이후)

■ 아내가 의사결정권 가져야 한다(%)
 ■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권 가져야 한다(%)
 ■ 남편이 의사결정권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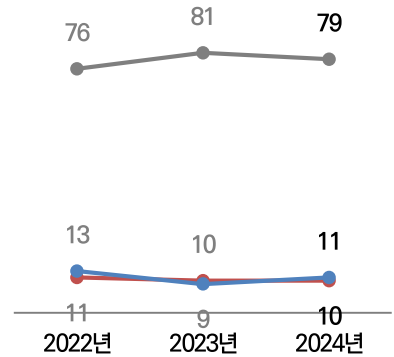
생활비 지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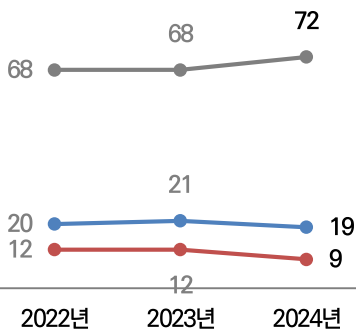
재산 관리 및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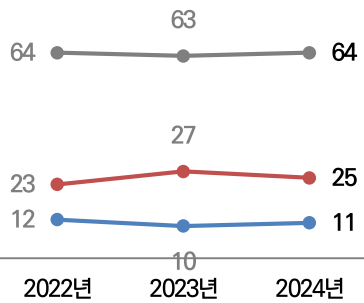
이사 및 주택 구입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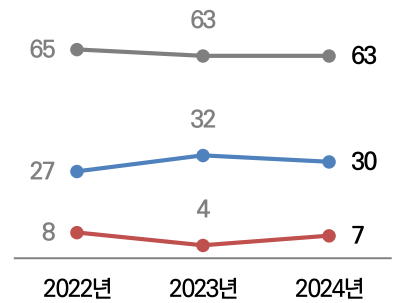
집안의 경조사 및 가족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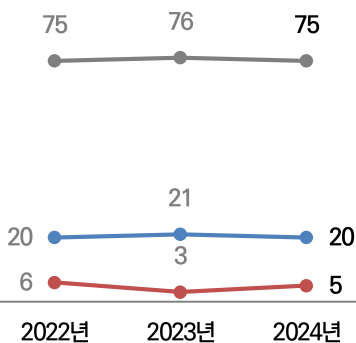
남편 쪽 부모 부양



아내 쪽 부모 부양



자녀 교육



질문: 다음의 각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2. 6. 17 ~ 20 // 2023. 6. 23 ~ 26 // 2024. 4. 18 ~ 22

실제로는 7개 항목 모두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권 갖고 있다는 비율 감소 생활비 지출,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의사결정권 있다는 응답 절반 이상

가사노동과 마찬가지로, 집안 주요 대소사의 실제 의사결정권도 이상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집안 주요 대소사 가운데, 생활비 지출과 자녀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2022년 이후 이어지는 흐름이다. 다만 부부가 실제로 똑같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똑같이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 대비 낮다. 대신 모든 항목에서 아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그래야 한다는 인식보다 높다. 재산 관리 및 투자, 이사 및 주택 구입 등 일부 항목에서는 남편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응답 또한 인식 대비 높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생활비 지출에 대해서는 기혼 남녀의 49%는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45%는 아내가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실제로는 아내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사람은 52%로 인식 대비 7%포인트가 높고,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사람은 37%로 인식 대비 12%포인트 낮다.

자녀 교육은 인식과 현실 간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이다. 자녀가 있는 기혼 남녀의 66%가 자녀 교육과 관련해 부부가 동등하게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실제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사람은 42%로 감소한다. 대신 아내에게 의사결정권이 있다는 사람이 52%로, 아내가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27%) 대비 두 배 가량 높다.

재산 관리와 투자에 대해, 3분의 2(65%)는 부부가 동등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부부가 동등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사람은 45%로 감소한다. 대신 아내에게 의사결정권이 있다는 응답은 29%로 그래야 한다는 인식(18%) 대비 11%포인트 높으며, 남편에게 의사결정권이 있다는 응답 또한 27%로 인식(16%) 대비 11%포인트 높다.

이사 및 주택 구입 결정도 비슷하다. 4명 중 3명(75%)이 이사 및 주택 구입 시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도 그렇다는 사람은 55%로 20%포인트 줄어든다. 아내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 26%, 남편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사람은 19%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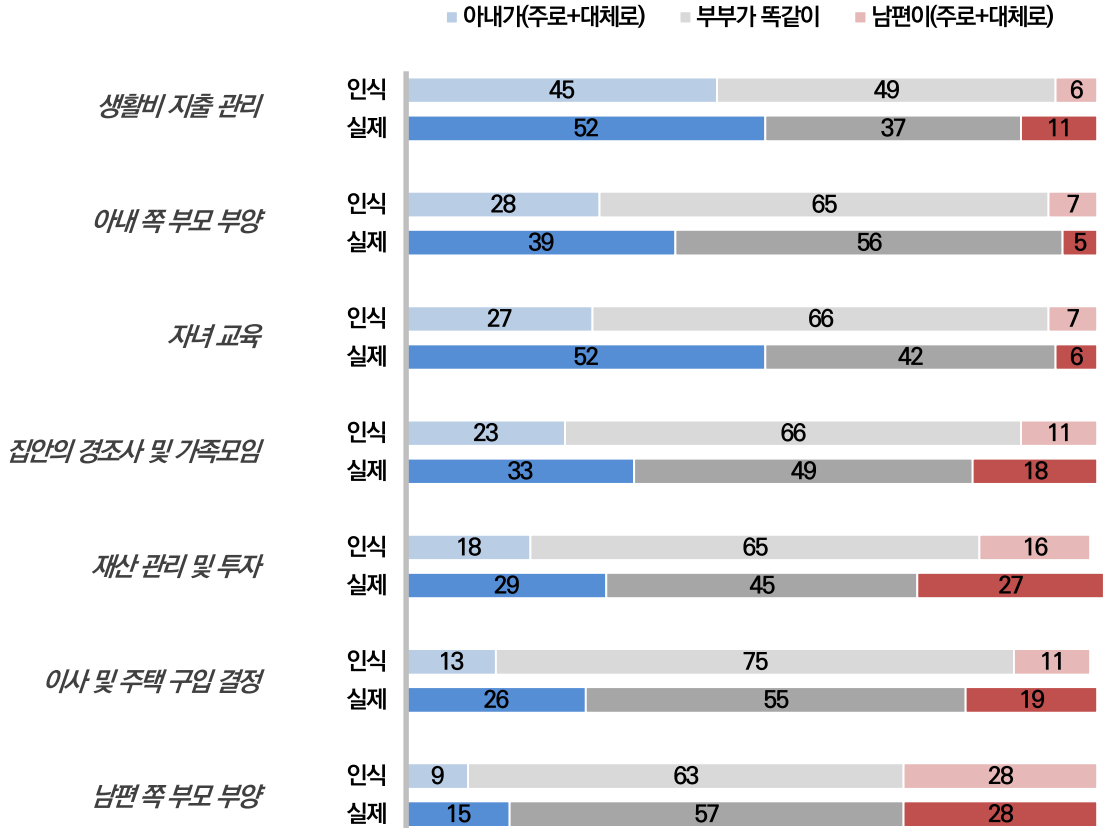
집안 경조사 및 가족모임에 대해서도 부부가 동등하게 의사결정의 해야 한다는 인식(66%) 대비, 실제로도 부부가 동등하게 결정한다는 응답(49%)은 낮다. 아내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33%로 인식(23%) 대비 10%포인트 높고, 남편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18%로 역시 인식(11%) 대비 7%포인트가 높다.

부모 부양에 대해서도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 대비, 실제 부부가 동일하게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줄어든다. 아내 쪽 부모 부양의 경우, 부부가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은 65%지만 실제로는 56%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남편 쪽 부모 부양에서도 부부가 동등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인식(63%)보다 실제 부부가 동등하게 책임진다는 사람(57%)이 더 적다.

가정 내 의사결정에 있어, 부부가 평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은 높다. 하지만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전문성, 편의 등 다양한 이유로 아내 혹은 남편이 의사결정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이상과 현실 간 간극이 줄어들지, 혹은 유지되거나 벌어질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는 7개 항목 모두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권 갖고 있다는 비율 감소
생활비 지출,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의사결정권 있다는 응답 절반 이상

(단위 : %)



질문 : 인식 - 다음의 각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 귀 닥은 다음의 각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 중 실제로 누가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습니까?

응답자 수 : 자녀 교육 - 배우자 있고, 영유아 혹은 초중고 자녀 있는 응답자 194명 남편 쪽 부모 부양 - 배우자 있고, 남편 쪽 부모님 있는 응답자 319명
아내 쪽 부모 부양 - 배우자 있고, 아내 쪽 부모님 있는 응답자 357명 그 외 - 배우자 있는 응답자 58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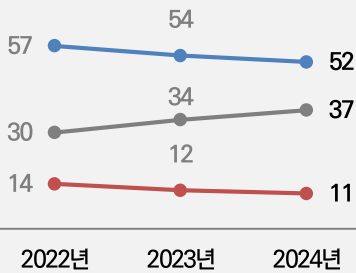
조사기간 : 2024. 4. 18 ~ 2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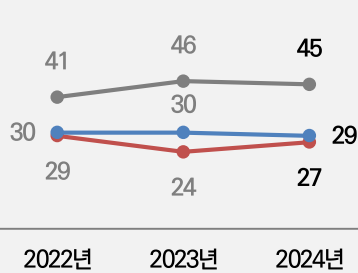
주요 집안 대소사에 대한 실제 의사결정권 소유 비교(2022년 이후)

- 아내가 의사결정권 갖고 있다(%)
-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권 갖고 있다(%)
- 남편이 의사결정권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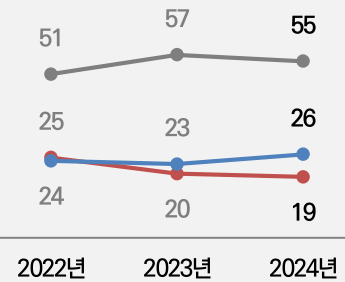
생활비 지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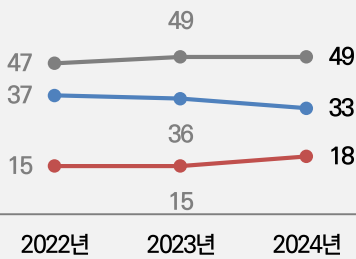
재산 관리 및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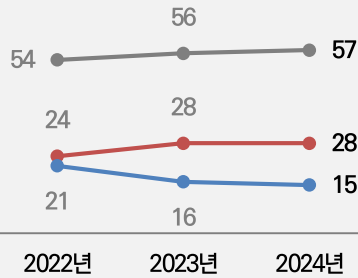
이사 및 주택 구입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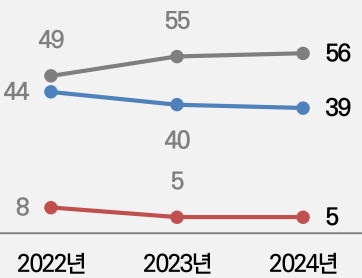
집안의 경조사 및 가족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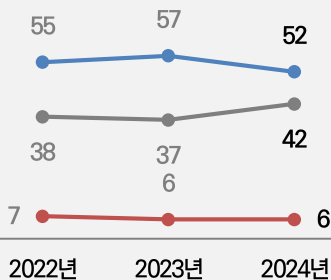
남편 쪽 부모 부양



아내 쪽 부모 부양



자녀 교육



질문: 귀 댁은 다음의 각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 중 실제로 누가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습니까?

비고: 기혼남녀 및 각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질문

조사기간: 2022. 6. 17 ~ 20 // 2023. 6. 23 ~ 26 // 2024. 4. 18 ~ 22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3월 기준 전국 92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26,846명, 조사참여 1,428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3.7%, 참여대비 70.0%)
조사일시	• 2024년 4월 18일 ~ 4월 22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